

NAVER 카페

산후도우미 이모님덕에 몸조리 너무잘했어요. | 엄마들의 수다방

코코제이(luv-****)

<http://cafe.naver.com/seosanmom/608600>

11월중순에 둘째아이를 출산했어요.
조리원을갈지 산후도우미를부르지 고민이 많았는데
큰아이가 눈에 밝혀서 산후도우미도움을 받기로했어요.

마지막 몸조리니까 ㅋㅋ 좋은분께 받고싶어서 주변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모님을 잘못만나서 몸조리하기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카페 후기도 수시로 찾아보고
여기저기서 추천도 많이 받았는데
다인** 최*애 이모님을 많이 추천해주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이분을 지목하시길래 고민없이 최*애 이모님을 지정했어요.
참. 이모님 지정하시면 지정비가 따로 지불해야되요.
지정하는건 본인선택이구요 좋은분께 받고싶어서 저는 지정했어요~

처음오신날 인사를 하고나서 아이케어랑 집안일은 내가 다할테니 산모님은 아무 신경쓰지말고 무조건 자기몸만 챙겨야한다며 필요한 먹고싶은거있음 불편해하지말고 얘기를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인상적이었어요 초면인사람한테 내집안일 내아이를 맡긴다는게 죄송스러웠는데 그리 말씀해주시니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몸조리기간동안 아침점심저녁 모두 균형잡힌 식단으로 맛나게 잘차려주셔서 너무 맛있게 잘먹었어요.
조리기간에 친정엄마가 오셨었는데 이모님 음식도 너무 잘하시고 좋으시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신랑이랑 딸도 맛있게 잘먹구 큰딸도 잘봐주셔서 지난주말에 이모님 언제오냐고 몇번을 찾던지 앞으로 계속 찾을기세예요TTㅋㅋ
집안청소며 빨래 설거지등등 제가 신경쓸거하나없이 깔끔히 해주시고 화장실청소랑 음식물쓰레기도 매번 버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날에 등뼈감자탕이 너무 먹고싶다하니 이모님이 선뜻 해주신대서 장봐서 드리니 한술 끓여놓으셨더라고요
은근히 손많이가는 음식인데 너무감사했어요
3주간 정이 많이들어서 저녁때 퇴근하시는데 이칩고 서운하더라고요TT
오늘도 첫째랑 둘째 잘있는지 안부문자도 보내주시고 TT친정엄마처럼 말도 잘통하고 포근하신분 만나서 마지막 몸조리 너무잘했어요. 앞으로 이모님없이 어찌해야되나싶어요TT 조리원이 아니라 정말 고민 많았는데 잘한선택인것 같아요. 지인분들 비롯해서 예비맘분들께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네요^^